



2만불 시대
중소기업이 열려갑니다



중소기업청
브리핑

제4호 2003년 12월 19 (금) 공보담당관실 TEL.042-481-4329~32 / FAX.042-472-3264

중소기업 공동 기술연구에 20억원 지원



중기청은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과 기업간 기술교류, 해외 기술동향 파악 등 기술클러스터 활동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기술연구회]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12.8부터 12.27까지 신청을 받는다.

「중소기업기술연구회」 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협회 등 업종별 단체, 대학, 연구기관 등이 대표 회원이 되어 기술연구회를 구성하여, 관리 또는

기술개발업무를 수행하고 일반회원으로 중소기업 2개 이상이 기술연구회에 참여하여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중기청에서는 기술연구회의 공동기술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을 통해 평가하여 우수한 기술개발과제를 제출한 기술연구회에 대하여 개발비용의 75%범위내 연평균 2억원까지 지원한다.

한편, 기술연구회사업은 지난해에 처음으로 14개 기술연구회를 선정하여 지원한 바가 있으며, 금년도에는 10개 내외의 기술연구회에 총 20억원을 지원

할 계획이다.

신청서류 등 자세한 자료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를 참조하면 된다.

▶ 기술지원국
기술정책과
(042-481-4438)



해외시장개척요원 양성지원 대폭 확대



노어, 포어 등 특수언어 및 이공계 대학 출신자, 중환 (1개월이상)

특히 국내교육 및 해외 활동 우수자에 대하여는 정부 포상, 창업 및 취업 지원 등의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의 미개척 신흥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전문가가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수출전문인력을 양성·공급하기 위하여 「2004년도 해외시장개척요원 양성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도에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우수 청년 실업인력을 중소기업 전담 수출인력으로 적극 유치하기 위해 금년도 110명 수준에서 700명(60억원)으로 대폭 확대 실시한다

참여자격은 미취업자 또는 중소기업근로자로서 진취적 개척자적인 자세와 함께 외국어능력이 요구되며, 중국어, 스페인어, 불어, 독어, 아랍어,

참여자 등은 우대된다.

동 사업 참여자는 국내에서 무역절차, 아이템선정, 시장조사 및 바이어발굴 등 4주간(합숙)의 무역실무 교육을 받게 되며, 미취업자는 2주간의 후견 중소기업 현장연수가 추가된다.

국내교육 이수 후에는 63개국 87개지역의 KOTRA 해외무역관, 수출인큐베이터, 국내기업의 해외지사, 교포기업 등에 4개월간 파견되어 시장개척활동을 전개하게 되며,

선발된 개척요원에 대해서는 국내교육비 및 왕복항공료 전액과 해외 체재·활동비 월 평균 135만원의 80%(근로자는 70%)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금번 해외시장개척요원의 신청·접수는 12월 9일부터 12월 30일까지 12개 지방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에서 하며, 1월중순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공지/보도) 및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영지원국
판로지원과
(042-481-4465)

창업실패사례에서 성공을 배운다!



중기청은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3개월간 총 44건의 창업실패사례를 공모하여 이중 14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모한 창업실패사례는 유형별로 분석하여 책자로 발간·배포하여 중소·벤처기업 창업자들이 실패사례를 공유하여 창업

성공율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

현재 운영하고 있는 창업 강좌의 교육사례로 활용하여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준비과정에서 실패를 최소화하는데 활용토록 운영할 계획이다.

창업실패사례 평가결과 창업실패의 주요요인으로 ①사업아이템 선정문제, ②창업자의 자세, ③창업단계별 기술격차 발생, ④창업팀 구성의 불균형, ⑤자금조달능력 부족, ⑥창업팀 내부갈등, ⑦ 외형확대 집착, ⑧지역적 한계 미고려, ⑨각종 위험의 미인식 등

으로 분석되었으며, 외부 환경요인으로는 그간의 벤처열풍과 소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실패 우수사례 수상자에 대해서는 상패와 부상으로 상금(최고 2천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창업을 재기할 경우 중기청이 추진하는 창업자금, 창업교육 등 다양한 지원시책 참여시 우대받게 된다.

▶ 벤처기업국
창업지원과
(042-481-4411)

벤처확인 혁신능력평가 기준점수 상향조정

내년 1월1일부터 벤처기업 확인요건 중 혁신능력평가 기준점수가 현행 50점에서 55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혁신능력평가 점수가 55점 이상일 경우에, 확인유형별 요건심사를 거쳐 벤처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혁신능력평가는 벤처기업의

기술 및 경영혁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02.11월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이번 기준점수 상향조정은 지난 6월 수립한 『참여정부의 벤처정책방향』에서 벤처기업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혁신능력 평가점수를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키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며 2005년까지 60점

대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개정내용은 '04.1.1이후 신청기업부터 적용되며 금년말까지 벤처확인을 신청하는 기업은 현행대로 50점을 적용받게 된다.

▶ 벤처기업국
벤처정책과
(042-481-4394)